

다산포럼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오랜만에 독일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다. 출장으로 하루 이틀만 다녀오곤 했었지만 이번에는 회의 일정이 길게 잡혀 있어서 베를린과 주변을 둘러볼 수 있었다. 마침 베를린의 현대사박물관은 1945년 나치 패망 80주년 특별전을 하고 있었다. 이 특별전은 우선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의 부끄러운 역사로 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었다.

나치의 합법적 집권에서부터 독일 제국이 몰락하는 과정까지는 가감없이 보여주었다. 1차 세계대전과 대공황으로부터 비정상적 집단이 정권을 잡게 된 과정은 항산(恒産)이 없으면 항심(恒心)이 없을 수밖에 없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러시아에 대한 공포를 과장하면서 히틀러의 권력 강화로 이어지는 과정도 보여주고 있었다.

1945년 이후의 과정은 세 가지 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하나는 핵 확산과 공포로 인해 빼앗겼던 자유에 대한 이야기였다. 둘째로, 1945년까지 독일이 전락폭격으로 망가졌다면, 그 다음은 한국 차레라는 설명이 있었다. 북핵뿐만 아니라 자체 핵무장 문제로부

독일에서 다시 만난 과거와 현재

터 자유롭지 않은 한국의 현실은 두 문제가 분리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천안문 사건과 독일 통일의 연관성을 조명했다. 천안문 사건에 대한 독일 시민사회의 각성이 없었다면 독일 통일로 연결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한 그림판에 천안문 사진과 브란덴부르크의 사진을 좌우에서 볼 수 있도록 배치함으로써, 탈냉전기의 세계를 한눈에 회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성찰은 라이프치히의 현대사박물관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라이프치히는 독일 통일에 대한 시민사회의 움직임이 처음으로 시작된 곳이었다. 그만큼 라이프치히는 바하의 무덤과 괴테 파우스트의 무대가 되었던 작은 도시였지만, 동독의 자유화와 독일 통일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이 박물관에는 과거 동독 시대의 현실을 재현하여 동독이 수립된 후 쓰러진 비스마르크의 동상에서부터 레닌과 스탈린의 사진과 동상, 그리고 동독 사회의 치밀한 주된 결점이 생생하게 전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가 대중이다! (Wir sind das Volk!)”라는 슬로건의 그림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베를린과 라이프치히는 전시회 이외에도 도시 전체가 과거를 기억할 수 있는 장소였다. 독일의회 옆에 있는 집시 학살을 추모하는 장소와 함께 베를린의 남서쪽에 위치한 그루네발트역도 인상적인 추모 공간이었다. 17번 플랫폼에는 유대인들을 끌고 간 시기와 유대인의 수가 그대로 적혀 있었다.

라이프치히에는 길 군데군데에 ‘결림돌’로 불리는

조그마한 동판들이 놓여 있었다. 유대인들을 끌고 간 자택 앞에 시민사회에서 가로 세로 10cm의 동판을 새겨놓은 것이다. 걸려 넘어지면 과거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뜻일 수도 있고, 지금 독일 사회에서 이주민을 혐오하는 극우세력들이 분기하는 것에 걸림돌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었다.

베를린에 갈 때마다 방문하는 카이저 빌헬름 교회는 1950년대에 복구를 위한 논의가 있었지만, 복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화해와 이해를 상징하는 한쪽 팔이 없는 예수상이 있으며, 이 교회가 박물관이 아니라 기억과 속력의 장소임을 알리는 동판이 걸려 있다. 1945년 이후 파괴된 모습을 그대로 둔 이 교회는 기억의 상징적인 장소이다.

아직도 복원되지 못한 하이델베르크 성 대산에 2차 세계대전 당시 전략폭격의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드레스덴도 방문했다. 전략폭격으로 하룻밤에 최소 3만여 명의 일반 시민들이 죽었다. 1945년 3월 8만여명의 시민이 죽은 도교 폭격의 전사였다. 아쉽게도 베를린과 달리 드레스덴에서 폭격의 흔적은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다.

이 모든 것들이 오늘 한국을 돌아보게 한다. 광복 80년을 맞은 한국. 또다시 전쟁에 이끌려 들어갈 뻔했던, 계엄의 공포에 떨었던 오늘의 한국은 과거에 대해 끊임 없이 성찰하고 있는가? 지금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전쟁과 독재의 잔재를 찾기는 힘들다. 새로운 혐오가 나타나고 있는 한국은 어쩌면 과거가 사라진 공간일지도 모른다.

社說

‘제주항공 참사’ 사조위, 유족 신뢰부터 얻어야

지난해 말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한 정밀조사 결과가 발표됐지만 유족들과 조종사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국도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지난 19일 무안공항에서 유족을 대상으로 연 사고기 엔진 정밀조사 설명회에서 “엔진 결함은 없었으며 조류 충돌 이후 조종사가 충돌로 더 크게 손상된 우측 엔진이 아닌 좌측 엔진을 끈 정황이 있다”고 발표했다가 유족들의 반발로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는 촛군을 벌였다.

사조위는 지난 두 달간 사고기 엔진 제작사가 있는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발표했다. 조종사가 오른쪽 대신 왼쪽 엔진을 끄면서 두 엔진 모두 출력을 잃었고 엔진에 연결돼 전력을 만들어내는 엔진전력장치가 작동을 멈춰 랜딩기어가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체 착륙을 하다보니 사고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족들은 사조위의 조사 역량과 투명성을 믿지 못 하겠다면서 블랙박스과 엔진 데이터를 공

개하라고 반발하고 있다. 제주항공 조종사노조도 사고조사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은 시점에서 조종사 과실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사고위의 발표처럼 조종사의 과실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일 수 있다. 그렇다면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유족들의 요구인 비행자료기록장치(FDR)와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 사조위가 발표한 엔진 정밀조사는 사고기의 엔진과 기체 제작사가 참여해 이뤄진 조사다. 사고를 낸 제작사가 중심이 돼 조사한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유족들 입장에서 당연하다.

사조위가 사고 규모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한 방위과 시설(로컬라이저) 둔덕 문제에 대해서는 긴급 안전권고 등의 경고 조치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고 원인을 성급하게 조종사 과실로 추정한 것도 문제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유족들의 신뢰부터 얻어야 한다. 유족들의 요구에 더 귀 기울이고 최대한 이들의 입장에서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서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극한 호우에 배수·저류 시설 인프라 확충 절실

이번에 광주시를 강타한 ‘극한 호우’는 배수와 저류 시설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제기하는 계기가 됐다. 이상 기후로 시간당 100㎜씩 내리는 극한 호우가 뉴노멀이 됐는데도 광주의 배수 시스템은 10년 빈도의 강수량에 맞춰져 있으니 도심 홍수가 일상화 될 수밖에 없다.

상습 침수지역인 북구 신안교와 산동교, 하신마을, 남구 백운광장, 서구 양동태평교 등은 이번에도 큰 피해를 입었다. 백운광장 일대는 2년 전 하수관로를 더 큰 것으로 교체했지만 역부족이었고 신안교 일대에선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다. 일상이 된 극한 호우에 맞게 배수 시스템을 새로 짜고 저류 시설을 늘리는 등 인프라 확충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대심도 빗물터널 조성을 극한 호우에 대비하는 대책의 하나로 추천하고 있다. 광주천 지하 30m 이상을 굴착

해 비상시 이용할 수 있는 물길을 여는 방식인데 2020년 서울 양천구가 이 방식의 빗물터널을 조성해 시간당 100mm의 극한 호우에 효과를 봤다. 문제는 막대한 사업비다. 광주천에 대심도 빗물터널을 조성하려면 7000억원의 사업비가 드는데 열악한 광주시 예산으로는 감당하기 힘들다.

사고 후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정부가 극한 호우에 대비해 배수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는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 소를 잃지 않도록 평소에도 외양간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침수 취약지역에 소규모 저류지를 만들어 대비하는 등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더라도 가능한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차제에 광주시는 근본적인 극한 호우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NGO 칼럼



최대언
초록우산 광주지역본부
옹호사업팀장

필자는 광주에서 아동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사회에 전달하여 제도와 환경을 바꾸는 아동 참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통 안전 문제, 디지털 속에서의 안전 문제 등 다양한 아동들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년이 지나도록 반복되는 아동들의 목소리는 공부 시간이 너무 많고 놀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학업부담이 아동의 정신건강과 행복에 실제적이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으나 우리 사회는 여전히 같은 질문 앞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대한민국 아동의 문제는 국가적 비교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유니세프에서는 43개 고소득 국가를 대상으로 아동의 웰빙을 3가지 영역(마음 건강, 신체 건강, 역량)으로 분석한 ‘이노첸티 리포트 카드 19’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아동의 역량(학업 성취, 사회적 역량 부문)은 전체 4위로 상위권에 해당되었으나 ‘마음 건강’ 부문은 34위로 하위권

아이들의 행복은 균형 잡힌 하루에서 시작된다

을 보이며 불균형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아동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무엇을 하는지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동의 균형 잡힌 시간이 중요하다고 제안한다. 더 구체적으로는 신체 활동이나 마음챙김 활동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 영향을 주지만 학업 압박은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릴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아동들은 어떻게 하루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에서 아동의 필수적인 4가지 생활 영역(수면, 공부, 미디어, 운동)에서 권장 시간을 얼마나 충족하는지를 기반으로 아동행복지수를 분석·발표하고 있다. 아동행복지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일상에서 더 균형 잡힌 생활을 보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2024년 아동행복지수는 평균 45.3점으로 대한민국 절반 이상의 아동이 필요한 권장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있었다. 대다수의 아동이 권장 시간에 비해 학업 시간은 과도했고 여가와 수면 시간은 부족한 불균형을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었다. 특히 하루 시간의 불균형으로 수면 시간이 부족해지는 아동들은 부정적인 자해 경험, 자살 생각, 우울·불안 등 심리·정서 위험률이 더 높아졌다. 아동들이 보내는 하루 시간은 단순한 시간표가 아니라 아동 행복의 핵심 요소이자 바로미터이다.

광주 아동들의 상황도 예외가 아니었다. 광주 아동

의 행복지수는 46.0점으로 전국 6위 수준이었으나 학업 시간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길었고, 여가 시간은 16 번째로 짧았다. 광주 아동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공부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여가 시간이 부족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아동들의 행복을 위해 가정과 사회는 아동들의 시간이 균형잡혀 있는지 살펴보자. 가정에서는 아동이 하루에 몇 시간 공부했지만 볼 것이 아니라 자는 시간과 쉬는 시간을 충분한지, 부모가 함께하는 시간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는 아동의 삶의 만족도와 정서적 안정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주말에 보호자와 함께 활동하는 아동일수록 우울·불안 지표가 낮아졌고 행복지수는 크게 높아졌다는 결과가 있었다. 부모님들은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곧 자녀 마음의 회복 시간의 열쇠라는 걸 명심하자.

또한 아동들이 많은 학업 시간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인 교육제도 변화에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과열된 입시 경쟁 속에서는 아동과 부모 모두 무엇을 하고 싶은지 고민할 여유조차 없이 학업 시간만 늘려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회 구조 속에서 아동들의 시간이 균형 잡히고 삶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공허한 기대일 뿐이다.

우리는 아이들의 ‘하루’를 바꿔야 한다. 그것이 결국, 아이들의 삶을 바꾸고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기 고



김지원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협력단장

광주전남 지역에 ‘극한 폭우’가 쏟아져 피해가 속출했다. 우리의 예측을 벗어나는 강렬한 기후 현상은 예고 없이 우리의 일상을 휩쓴다. 게릴라성 집중호우는 여름철 강우가 집중되는 우리나라 기후 특성상 갈수기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물을 확보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된다. 기후위기는 우리가 마시는 물 한 잔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사실을 거듭 상기시키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에 물관리의 패러다임은 ‘더 많이 확보하고 공급하는’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가 새롭게 확보할 수 있는 수원은 한정돼 있기에 ‘새지 않게 지키고’, ‘효율적으로 나누며’, ‘기후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방향’을 원칙으로 이미 있는 물을 알뜰히 쓰고 살뜰히 살펴야 한다.

이를 위한 출발점은 노후 상수관망을 정비하는 데서 시작한다. 특히 중소 규모 군(郡) 지역은 급수 인프라의 한계로 인해 정비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 급속 깊숙이 뚫힌 오래된 수도관은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서 소리 없이 물이 새고 있다. 이 작은 누수가 모이면 물을 잃고 에너지를 낭비하며 지구의 온도까지 높이는 큰 피

기후위기 대응의 출발점 ‘노후 상수관 정비’

해로 이어진다.

2023년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전국 평균 유수율은 85.0%이며 시(市) 지역은 89.2%, 군 지역은 70%대 중반에 불과하다. 유수율은 정수장에서 생산한 수돗물이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비율이다. 수돗물 4 t 중 1 t 이상이 땅속으로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물을 생산하는 데 들어간 전력과 자원이 헛되이 사라지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배출된 온실가스가 누적되는 것이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분석에 따르면 유수율을 1% 포인트만 높여도 하루에 t 당 약 0.24kg 이산화탄소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 하루 10만 t을 공급하는 지자체가 유수율을 75%에서 85%로 높일 경우 연간 약 876 t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는 나무 12만 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양이다.

물을 지키는 일은 곧 미래를 지키는 일이다. 깨끗한 물을 아이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새는 물을 막고 유수율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날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기후행동이자 가장 확실한 투자다.

환경부는 2017년부터 국비 지원을 통해 지자체의 노후 상수관망과 정수장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도 이러한 국가사업에 참여해 기술력과 헌신으로 성과를 쌓아가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분부는 전남·전북·제주 지역에서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을 수행해 왔으며 진안군 사례는 그중에

서도 지역공동체의 노력과 기술이 조화를 이룬 대표적 사례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진안군과 함께 유수율을 44.3% (사업 전)에서 90.8%로 끌어 올렸다. 이는 단순한 수치 개선이 아니라 주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을 되찾았다는 뜻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수자원공사는 진안군의 2024년 2차 국비 지원사업 대상 선정에 발맞춰 올해 6월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다시 한번 ‘물 복지’를 향한 큰 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기후위기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순간에도 우리 곁에 있고 더는 미룰 수 없는 현실이다. 우리는 단순히 더 많은 물을 찾기보다 이미 있는 물을 잘 지키고 나누는 지혜가 필요하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는 이러한 변화의 물꼬를 트는 물리적 기반이며 에너지 절감과 운영비 절감, 탄소 감축이라는 3중 효과를 통해 기후 회복력을 높이는 고효율의 투자다.

이제는 전국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상수도 정비사업을 기후대응형 사회기반시설(SOC)로 인식하고 전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한국수자원공사 역시 기술을 넘어 사람을 향한 물관리를 실현하며 ‘깨끗한 물이 곧 생명’이라는 가치를 지켜내는 글로벌 물기업으로 나아가야 한다.

한 가정의 식탁 위에 놓인 투명한 물 한 잔, 그 안에 담긴 안심과 평온. 그것을 지키는 일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물관리의 최종 목적지다.

無等鼓

우리나라 설화나 전설은 서양과 달리 유난히 효자 이야기가 많다. 지역을 대표하는 설화는 물론 마을마다 효자 이야기가 전해오거나 기록으로 남아있을 정도이다. 효자 설화의 공통 주제는 공교롭게도 현대 사회의 가장 심각한 가정 문제와도 맞닿아있는 간병이다. 설화의 내용은 효자가 오랜 동안 병석에 누워있는 부모님을 극진히 간호하지만 호전되지 않아 온갖 방도를 찾아 다니는 내용으로 대동소이하다. 특히 마지막 대목에는 신선이아 산신령의 계시대로 자식을 희생시키거나 목숨을 거는 위험을 감수한 끝에 간병비를 얻어 부모의 병을 낫게 했다는 뻔한 내용이 나온다. 또한 설화의 특성상 자녀 희생이나 목숨을 바치는 행위는 신이 효자의 마음을 시험한 것으로 중국에는 모두가 행복한 해피엔딩이라는 정형화된 서사이다.

효자의 간병 이야기가 많은 것은 옛날에도 간병으로 인한 가정의 고통이 그만큼 심각했다는 방증이다. ‘긴 병에 효자없다’는 말이 내려 오는 것을 보면 옛날에도 간병은 심각한 사회 문제였을 것이다.

요즘에는 가족 간병이라는 말이 새롭게

생겨났다. 온 가족이 힘을 모아 부모님을 간병한다는 뜻이 아니라 노인을 오랜 세월 간병하다 가족 전체가 경제적 곤란과 심신의 고통에 빠진 질병이라는 의미로 온라인상에서 쓰이는 단어이다. 간병이 오죽힘들었으면 그런 단어가 생겨났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뒷맛이 개운치 못한 용어임에는 틀림없다.

일반적으로 노인이 암에 걸려 1차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2차병원에 입원할 경우 환자마다 차이는 있지만 한달 병원비는 병실료를 포함해 300만 원대 선이다. 하지만 간병인을 고용하면 한달을 500만 원에 달한다. 환자가 첨단의료시설과 의사, 간호사 등 모든 의료 서비스를 받으면서 내는 돈은 300만원인데 단 한 사람의 간병인에게 주는 돈이 500만원이라면 이는 논리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사업의 로드맵을 구제화했다고 한다. 이번 기회에 민간단체 등 순수 사적 영역으로 분류된 간병 체계를 현행 의료기관들이 양성화해 운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주시길 바란다.

/채희종 디지털본부장 chae@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24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치 부 220-0634	예 행 부 220-0692	(FAX 222-8005)	(FAX 222-0195)
제 부 220-0648	예 론 배 제 부 220-0661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회 부 220-0664	사 진 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80	디 지 털 부 220-0697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